찬란한 유산, 남의 일 아니다

(역대상 22:1~19)

6.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오늘 말씀 중심으로 <찬란한 유산, 남의 일 아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찬란한 유산, 남의 일 아니다'
나에게도 찬란한 유산이 있고 나 역시도 찬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집 사람이 인터넷으로 위성지도를 보고 있어서 무얼 보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보다가 어딘가에 전화를 합니다. 통화 내용이 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언제 사셨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경기도 인근에 땅을 사셨다고 합니다. 100평이 채 못 되는 땅을 그 당시 900만 원으로 매입하셔서 땅 문서를 집사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집 사람이 인터넷 위성지도에서 땅 주소를 보며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전화를 걸어서 땅의 시세를 알아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거의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판 사람도 돈을 주고 샀겠지만 완전히 골짜기와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적도 상에서 20여 등분을 해서 신문에 개발 예정 상업지역인 것처럼 광고를 냈는데 다행히도 장모님께서 사신 땅은 제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당시 돈으로 사

오천만 원씩이나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명의 명단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을 매매하려면 그 20명이 모두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소가 하는 말로는 그 땅은 개발이 될 수도 없고, 개발이 될 필요도 없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골짜기와 봉우리가 있는 경기도 인근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하게 그 토지대장을 들고 있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는 유산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도 아니고 TV드라마에서의 찬란한 유산도 아닙니다.
저는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를 안 보았습니다만 어떤 분은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를 CD로 구워서 백번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보셨다는 것을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렇게 보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나 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유산이 어떤 작품인지 찾아봤습니다. 한 아가씨가 우연히 한 할머니를 도왔는데, 그 할머니가 식품 회사의 재벌이었습니다. 손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찬란한 유산이라는 제목대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도울 할머니가 어디 없을까 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많은 아들 중에서 왕위를 이어 받게 된 솔로몬 사이에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유산 상속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와 나라가 이양되는 단계를 하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왕위가 이양되기까지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등 제반에 걸쳐서 많은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길 때 많은 말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왕위 이양에 대한 단계에서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단 하나인 것처럼 기록하였는데,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그 외의 것들이 다 부수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되는 것이 왕위와 나라에 관련된 그 많은 말을 제쳐놓고 네가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과제를 유산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윗은 자신을 성전건축을 위한 재화를 모으고 준비하는 자로서 규정합니다. 자기 평생의 존재 이유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자인 것처럼 여겼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업적과 전쟁의 승리와 영토의 확장을 다 제쳐놓고 오직 성전건축을 준비하는 것이 평생의 일이고 존재의미인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성전건축을 위해서 모은 어마어마한 재화의 양이 유산으로 넘어 가는데 학자들 간에 논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14절에 보면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로 한 달란트는 3.427kg입니다. 금 십만 달란트는 3,427톤이고, 은 백

만 달란트는 34,270톤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왕상10: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요”라고 하는데 십만 달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무려 150년을 모아야만 하는 양입니다.
주석을 보았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원 단위로 환산을 해놨습니다. 요새는 일당이 이십만 원씩 하는 장인들도 있지만, 예전 기준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을 삼만 원으로 잡는다면 금 십만 달란트면 2,700조 원에 해당됩니다. 은 백만 달란트는 1,800조 원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품삯을 평균 9만 원정도로 잡으면 금이 8,100조이고 은이 5,400조입니다. 합해서 1경 3,500조인데 철과 놋과 재목과 돌은 뺀 수치인데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정말로 그렇게 모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필사자들이 0 하나씩을 잘못 보탠 것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축자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세계 제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1년 예산 400조가 1경 3,500조가 되려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성령님께서 에스라를 감동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묻는 것인데 이것은 곧 성전의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이기도 한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역사상 1경 3,500조 원을 모은 사람도 없고 그러한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성전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라는 물질을 통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환산해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와 효용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많은 돈을 적당히 분배해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100년은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성전에 다 투입을 하는데 대체 성전이 무엇이고, 성전의 의미를 완성한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비싼 가치가 매겨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전건축이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데 이 찬란한 유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각 개인이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서 그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어 성전의 모습과 내 마음을 비교해봅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 안에는 말씀하시는 인격적이

신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시는가를 살펴봅니다. 또한 분향단이 뜻하는바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떡 상이 뜻하는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등대가 뜻하는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가를 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이름이 들어오더라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의 번제단에서 어린양이 죽어가고 있음을 상기하고 나의 인격이 죽는 것으로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업장에서든 직장에서든 생활화할 때에 1경 3,500조의 가치에 해당하는 성전의 모든 효용성과 의미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에덴의 창출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에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죄를 많이 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토 확장의 야욕이나 전리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전쟁을 수행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많이 한 것이 다윗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건축을 금지시키셨던 것일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전쟁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조차도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른 적은 없었고 이렇게 많은 승리를 얻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과 승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되는 이 성전은 전쟁과 승리의 아이콘과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유산으로 받고 그 효용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1경 3,500조라는 비유적인 숫자로 나타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들어간 돈이 몇 백조라고 해도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가 늘 손에 쥐고 쓰는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경 3,500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좋아하는 돈의 가치로 말할 때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전이 전쟁과 승리의 아이콘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찬란한 유산으로 받아들여서 생활화하고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피땀 흘리고 수고해서 어려운 성과를 얻는 삶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름의 의미가 샬롬입니다.

만약에 백억을 유산으로 받았으면 특별히 타락한 사람이 아니면 백억으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다윗이 평생 보여 주었던 것처럼 전쟁하고 승리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장갑으로 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과 승리의 아이콘하면 내가 분투하고 쟁취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성전이라는 찬란한 유산으로 받은 성전을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샬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성전을 유산으로 삼은 삶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란과 고충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솔로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타락이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솔로몬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이 신약성경에서는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 평강으로 바뀌었고 순교자의 순교현장에서의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평강을 받고 보면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평강한 가운데 돈이 있어도 돈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하게 쓸 수 있고, 마음이 평강한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삽니다.
주님도 돈 없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돈으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집도 절도 없이 쫓겨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돈 없는 노예들이 로마 대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찬란한 유산만 있으면 되는데 1경 3,500조의 가치가 있는 성전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값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으로 비유적으로 환산한 돈은 1경 3,500조입니다.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반지가 십억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끼고 다니면서 김치도 담그고 밥도 짓는다면 우리는 1경 3,500조짜리 유산을 날마다 활용하면서 쓰는 것인데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십 억짜리 페라리를 사면 스크래치가 날까 운전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경 3,500조짜리 십자가를 날마다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찬란한 유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보내면서 유산을 활용합니다. 오늘 하루 일당 이십만 원 벌기 위해서 뛰기 전에 1경 3,500조짜리 십자가를 활용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내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고 주님은 아버지

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며 교제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맞아들이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맞아들이게 하시므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로 배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보이고 선한 사람을 만나도 선한 사람 뒤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이고 넉넉해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백합화를 입히는 하나님을 보신 주님의 시각으로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임했던 절대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에덴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1경 3,500조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묻어 두지 말고 시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또한 십자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 준 것이 성전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돈 몇 십억, 몇 백억 물려주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겠습니까? 십자가 하나 물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의 삶 구석구석에 어둠이 없는 절대 평강이 주어지고, 그 평강의 삶이 주어질 때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남북통일을 이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기업인도 나올 수 있는데 찬란한 유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1경 3,500조 가치의 찬란한 유산만을 활용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